

3학년 때 일어났던 도난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설 쓰기.

제출자: 허찬솔
지도교사: 강희석

초록

이 논문은 3학년 때 일어났던 도난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쓰는 작품 논문이다. 소설을 쓰는 과정과 그것에서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중시할 여러 사항들을 적어두었다. 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소설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서, 첫 문장의 중요성과 큰 사건이 터지기 전의 암시의 중요성, 인물, 사건, 배경과 여러 시점들을 설명한 논문이다. 소설을 쓰는 것에 중요한 무의식의 주는 아이디어를 캐치하거나, 필자가 묘사력을 늘리는 방법 등을 서술해놓았다. 이 서술된 방식대로 작품을 만들었다.

목차

I. 서론

1. 동기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II. 본론

1. 소설이란.
 - 1) 소설의 역사.
 - 2) 소설의 특징.
2. 소설의 여러 요소와 단계.
 - 1)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
 - 2) 소설의 여러 기술적 요소와 단계.
3. 우리학교에 대한 간단한 설명.
 - 1) 제천간디학교의 생활관 하늘마루란?
 - 2) 스태프회의는 무엇일까?

- 3) 스태프회의 진행방식과 분위기.

4. 작품 쓰기.

- 1) 참고 도서와 인터뷰로 얻은 점.
- 2) 얻은 점을 바탕으로 소설 쓰기.
- 3) 내 작품에 대한 설명.

III. 결론

1. 평가
 - 1) 간디인 평가
 - 2) 전문가 평가
2. 연구의 성과와 한계

<부록.>

I. 서론

1. 동기 및 목적

옛날부터 글 쓰는 것을 간간히 했었고, 나쁘지 않게 쓴다는 소리도 간간히 들어왔었다. 그러다 3학년이 되고나서, 논문으로 무엇을 쓸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어렵지 않은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여러 주제들을 고민해봤지만 어렵고 무엇보다 쓰기 귀찮을 것 같아서 그 주제로 하기가 싫었다가, 문득 글쓰기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여 이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이다. 나는 살면서, 또 인터넷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어느 정도는 합리화 한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다수가 그렇다고 말한다면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그 상대방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선 여러 안 좋은 댓글들로 괴롭히는 것 또한 굉장히 싫었다. 그리고 제천간디학교에서 살면서 든 생각은 과연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다수가 옳다고 주장할 때 그 다수에 휩쓸린다면, 그 다수가 가리키는 사람은 굉장한 상처를 받고 매우 억울한 것을 알리는 것과, 여러 상황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다.

2. 연구 방법 및 구성.

앞서 말했듯, 그 피해자의 시점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나는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따라서 우리학교에 비슷한 사례가 가장 최근에 어떤 학생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인터뷰하여 억울하게 몰린 사람의 시점에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조사할 것이다.

또한 외부인이 접할 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공동체, 스태프회의, 동장 그 외에 많이 쓰이는 단어.) 그 단어들을 소설 중간 중간에 설명하는 것으로 넣을 예정.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간디인 평가를 받고 이인휘 소설작가님의 평가를 받고 나서 내가 능력이 닿는 부분은 다시 수정할 계획이다.

II. 본론

1. 소설이란?

소설(小說)은 사건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해석, 그 사건을 새로 구축하여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말과 의미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서술한 문예이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에 올리는 인터넷 소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처럼 인물·사건·배경을 구조적 기본 요소로 하고 자신만의 허구성을 풀어 만드는 문예인 것이다.¹⁾

2) 소설의 역사.

소설의 기원은 고대부터 내려온 신화, 서사시 등의 이야기이라 한다. 즉, 서양의 그리스 신화나 한국의 주몽 신화 등, 여러 신화에서부터 일리아드, 동명왕편 등의 서사시가 소설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서양에서 근대적 소설의 바탕이 된 것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기사들의 영웅담 등을 소재로 한 이야기이다. 특히 로망스에서 프랑스 남부의 기사 영웅담은 환상적으로 미화된 기사가 주인공이 되어, 권선징악의 주제를 이끌며 낭만적인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데, 이것들이 여러 방향으로 변형되어, 현재 환상적 무용담이나 연애담을 뜻하는 로맨스라는 장르로 남았다. 한국의 춘향전도 이러한 성격을 다분히 지녔다. ²⁾

3) 소설의 특징.

소설은 여러 틀 안에서 놀지 않고, 작가가 자신만의 특성으로 형식 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의 형식으로 된 가공된 이야기이다. 즉,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받아서 적는 수필과는 달리,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더욱 부풀리거나, 꾸며내고 가공된 이야기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그 꾸며진 이야기는 작가만의 생각, 또는 경험을 그 작가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이나, 생각, 또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꼬집는데 의미가 크다. 때문에 소설의 특징을 체험과 상상이 만들어 낸, 언어예술로서 오락으로 즐기는 사람 또한 있다. 이 부분에선 웹 소설이 대부분 그러하다.

2. 소설의 여러 요소와 단계.

(1)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야기의 전개나, 묘사력도 아닌 그 소설의 주제이다. 작가가 이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 싶고, 느끼고 싶었으면 하는 핵심적인 의미를 그 소설의 주제라고 칭한다. 예를 들어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교훈인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한다. 라는 교훈처럼 말이다.

소설의 주제는 작가가 풀어내는 이야기를 통해 구체화되고 전달된다. 소설의 주제가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의미인 것이다. 소설의 주제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정해지고,

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4%A4%EB%A5%BC>에서 재인용.

2)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4%A4%EB%A5%BC>에서 재인용.

그 내용은 곧 작가의 사상이다. 작가가 다루고 싶은 그 문제 자체가 소설의 주제가 된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이 소설이 지향하는 의미와 목표를 위해 행동한다. 그리고 소설의 주제는 대체로 이야기의 결말 단계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모든 퍼즐이 한 조각으로 맞춰지는 순간, 그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설의 주제가 도중에 흔들린다면 이야기도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만다. 인터뷰를 할 때 이인휘 소설작가님도 이러한 부분을 아주 크게 경고하셨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해놓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이다. 필자도 이번에 작품을 쓰면서 그 부분을 매우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주제가 확고해야지만, 등장인물이 행동과 이야기의 전개도 더욱 잘 풀려나갔음을 느꼈다.

가. 소설의 첫 마디와 들어가는 문장.

또,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는 첫 마디와 이어지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문장들과 암시다. 독자들이 궁금해서 계속해서 읽게 만들 수 있는 암시와, 단어들을 곳곳에 배치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작가들은 자신이 쓴 책이 피땀을 흘려가서 만들어낸 노력의 창작물이라 할지라도, 독자들은 그렇지 않다. 독자들에게 그 작가의 책은 재미없으면 결국 안 읽게 되고 방치되는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독자들을 끝까지 읽어나가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대부분 첫 문장과 극 초반에 등장해야함을 느꼈다.

서점에서 구매할 책을 고를 때, 또는 집이나 도서관에서 읽을 만한 책을 고를 때 대부분 앞, 뒷면의 표지나 첫 도입부 부분을 보고선 재미가 없다 싶으면 바로 책을 내려놓기 마련이다. 작가들 또한 이 부분을 뼈저리게 알고 있고, 참고도서인 단편소설쓰기의 모든 것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설명했었다.

나. 납득할 수 있는 등장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대한 암시.

또 작가로써 명심해야할 부분은, 과연 이 등장인물의 행동들이 독자들이 보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는 부분과,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암시를 계속 던져주는 것이다.

첫 번째로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기상천외하다면 소설을 읽는 독자입장에선 물입이 단번에 깨진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스킷 안 읽고 넘어가게 된다. 물론 그럼에도 꾸역꾸역 읽을 수 있지만 독자들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필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과연 이렇게 써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했다.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한 등장인물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읽지 않았거나, 읽는 것을 관둘까 싶었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휘 소설작가님께서 제시해주신 해결책은, 자신이 생각했던 인물의 성격과, 그 성격과 유사한 사람들의 사연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자신도 이입시키라는 것이었

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그리 말씀해주셨다.

두 번째로 암시를 계속 던져줘야 한다. 아까 설명했을 독자들의 흥미유발 부분과도 일부분 이어진다.

어떠한 일이 갑자기 아무런 전조도 없이 터져버린다고 생각해보자. 이해가 잘 안 간다면 고전 이야기를 한 번 꺼내보도록 하겠다.

어떤 마왕이, 공주를 납치해가서 왕이 용사에게 마왕 토벌을 명령한다. 용사는 매우 고단한 역경을 이겨내고 버텨내며 점차 성장해가며 결국 마왕에게까지 당도했다. 하지만 그 마왕이 병으로 죽어있고, 마왕 말고는 그 누구도 공주를 챙겨주지 않아 아사를 당했다고 하자. 그걸 읽거나 본 독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너무나 황당하고 이걸 왜 읽었지? 차라리 읽지 말걸. 이런 생각이 필히 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기서 마왕이 병들고, 나약해졌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묘사가 중간에 끼었다면? 공주를 그나마 챙겨주던 게 마왕 밖에 없다는 묘사가 도중 도중에 나왔다면? 그리고 마왕과 공주가 죽어나가는 것을 도중에 암시하거나 시점을 바꿔서 독자들에게 알려줬다면?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리라. 완전히 이상하고, 해괴망측한 이야기에서 마왕과 공주가 죽은 것을 본 용사의 반응은 어떨까? 하며 궁금증으로 오히려 더 읽을지도 모른다. 엔딩을 보고선 참신하다며 박수를 보낼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듯 중간 중간의 암시와 묘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분명히 아무런 전조 없이 커다란 일이 폭탄처럼 터졌다면 그 어떤 독자가 읽고 싶어 하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암시를 던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인휘 소설작가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주셨다.

(2) 소설의 여러 기술적 요소와 단계.

소설에는 여러 요소들이 많다. 알 듯 모르듯,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의외로 꽤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다.

일단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의 3요소부터 알아보자.

인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

배경: 인물이 행동하는 때(그는 7시부터.)와 장소(바닷가에서 놀았다.)

사건: 인물들이 일으키는 일과 행위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의 핵심. 이것으로 등장인물들이 합심하거나 갈등하기도 한다.³⁾

소설의 주제를 전개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 중에 하나만 빠져도, 소설이라 부르기 애매모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 요소들의 묘사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상한 곳에서 묘사를 잘해봤자, 저 요소의 묘사가 부실하다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또 다른 요소는 시점이다. 이 시점은 독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4%A4> 에서 재인용.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쓰는 필자의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점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 시점은 전지적 작가시점,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단수 인물 시점 등 꽤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나씩 풀어 설명해보겠다.

가. 전지적 작가 시점.

이 시점은 자신이 이야기꾼과 같은 능력 지닌다. 즉,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설명하는 일명 썰을 풀 때, “개가 짜증나서 컵을 던졌는데 문제는 그 애한테 던져진 컵이 자기 거라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애가 본거야. 당연히 개도 화가 났지.” 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심정까지도 이미 알아 같이 설명해주는 것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다.

쉽게 말한다면 그 이야기의 신이 되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내용을 압축하거나 간추리며 인물들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의 생각과 감정을 풀어내주는 한편,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상당히 객관적으로, 심지어 흥미롭다는 듯이 풀어내주기도 한다. 물론,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또는 그 속 안에 들어가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풀어내주기도 한다. 이때 그 내용은, 주인공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내용과 다를 수 있다.

저 인물, 이 인물, 주인공의 머릿속을 쉬지 않고 들락날락거리기에 독자들이 인물의 행동과 생각에 갖는 의문점들은 자연스레 해소되며 어느 한 인물 속에 갇혀있다고 느끼는 새가 없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대부분 단수 인물 시점이나 복수 인물 시점만큼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가 없다.

전지적 작가시점은 천천히 움직이며, 어느 한 곳에만 갇혀있지 않기에 다른 등장인물들이 분노하더라도 그 인물에게 완벽하게 몰입할 틈이 없다. 그렇기에 독자들이 느끼는 이 시점의 특징은 차분하다 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르 소설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걸 모두 허용하지만 딱 하나 제한된 부분이 있다. 자유분방하게 인물에게 이입하여 대변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는 다르게,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은 한 인물에게만 들어갈 수 있다.(앞서 예시로 적혀진 저 글의 부분에서 작가가 허찬솔의 마음속으로만 들어가고, 그 외 다른 등장인물은 친구의 마음속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또한, 후술할 단수 인물 시점이나 여러 시점으로 바뀌가기에도 문제가 없는 범용성이 넓은 시점이다.

다. 작가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작가가 어떤 인물의 머릿속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도라에몽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전 시간대로 넘어가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관찰하기만 한다. 즉, 그런 사람이 되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저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 등장인물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무엇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관찰로

언어내는 행동과 인물의 생김새와 장소일 뿐이다.

이 시점이 앞서 본 전지적 작가시점과 제한된 전지적 작가시점과는 차별화 되어 있는 부분은, 두 시점은 모두 서술자 시점인 반면 이 시점은 화자가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크다. 소설을 읽을 때, 대부분은 자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느끼기 보단 지금 일어나는 일을 직접 보고 듣고 있다고 느낀다. 꼭 자신도 그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있는 곳에 있지만, 자신의 모습을 주인공과 등장인물 모두가 모른다고 느끼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만 보이고 들리는 걸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틀렸다.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 있는 책은 논평과 해석이 담겨있다. 카메라는 논평과 해석은 하지 못할 것이다.

작가들은 뛰어난 재주로 독자가 인물들과 같은 방 안에 있으며 자신은 보이지 않은 채 그들을 순전히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쓴 소설은 연극과 일부 영화와 게임들과 비슷하다. 그곳의 인물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듣지만 그 누구의 마음속도 들여다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

라. 단수 인물 시점.

단수 인물 시점은 작가에게 굉장한 제약이 따른다. 작가는 오로지 시점인물이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것들만을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약만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전지적 작가시점이나 제한된 전지적 작가시점에 비해, 독자들이 장황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시점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오직 한 곳에서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 인물에 굉장히 집중하게 때문에 독자가 그 인물에 강력하게 동일시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것을 이끌 수 있다.

대부분의 장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정말로 자신들을 주인공과 동일시하고 싶어 한다. 로맨스 소설을 읽는 독자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주인공이 겪는 모험과 여러 이야기들을 대리 체험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독자가 자신과 주인공을 동일시하려 할 때 그 소설의 시점이 단수 인물 시점으로 쓰여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른바 순수문학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훨씬 자주 사용되는 반면, 상업 단편 소설은 대부분 단수 인물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3인칭이라면 단수 인물 시점이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다.(1인칭이나 2인칭에서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엄격하게 객관성을 지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주관적으로 서술할 때는 시점인물이 무엇을 보고 듣는지부터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지에 대해 써도 된다. 하지만 시점인물의 겉모습이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지는 말할 수 없고, 그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말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서술할 때는 시점인물의 겉모습을 말할 수 있고, 그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서술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시점인물의 감정과 내적 감각, 생각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무엇도 언급할 수 없다.

마. 복수 인물 시점.

복수 인물 시점은 언뜻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매우 단순하다. 각각 모두 다른 시점인물을 내세워 쓴 단수 인물 시점의 에피소드를 여러 개 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앞에서 설명했듯 다른 인물에게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매우 빠른 시간에 반복한다. 하지만 복수 인물 시점은 인물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전지적 작가 시점과는 다르게 꽤나 길다. 즉, 굉장히 빠르게 인물의 시점이 바뀌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는 다르게, 인물의 시점이 바뀌더라도 그 인물의 시점에서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크다.⁴⁾

3. 우리 학교에 대한 간단한 설명.

(1) 제천간디학교 생활관 하늘마루란?

제천간디학교는 비인가 학교이며 6년제 중고통합과정의 기숙형 대안학교이다. 따라서 자연히 생활관이 존재하는데, 생활관의 이름이 하늘마루이다. 남자기숙사와 여자기숙사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건물 안에 존재한다. 하지만 만남의 광장이라는 조그마한 곳을 기준으로, 여자와 남자를 나누어 생활하고 있다. (이후 서술할 내용은 모두 남자 생활관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1층에는 101, 102, 103, 104, 105, 106호의 총 6개의 방이 존재하고, 2층 침대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총 4명에서 한 방을 사용하며 생활한다. 2층에는 201, 202, 203, 204호의 총 4개의 방이 존재하고, 1층보다 하나의 방 크기가 매우 크고, 다락방까지 존재하여 한 방에 6명, 7명까지도 생활하는 공간이다.

여러 당번들이 있고, 그 당번들이 맡은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X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 X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강한 벌칙에 놓이게 된다. 당번들인 남자 생활관 정기회의를 하기 전에, 7시 10분 사감실로 모여 당번들의 평가와 알림을 동장에게 전달하고, 동장은 그것을 회의 시간에 모두에게 전달한다.

매주 일요일 대청소를 하기 전 저녁 7시 30분에 정기적 회의를 하며, 그곳에서 여러 알림 등을 나누고, 안건과 건의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기숙사에서 통상적으로 열리는 모든 회의는(스탑회의 포함) 거의 모두 동장이 진행한다.

현금은 소지가 가능하며, 라면과 치킨 같은 포장음식과 냉동식품은 가능하지 않지만 과자는 소지 및 섭취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많이 도난이 되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간식과 돈, 그리고 과자다.

친구들과 노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친구도 있으며

4) 단편 소설쓰기의 모든 것 217쪽~226쪽의 내용을 재구성.

공부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 사람들의 성격과 특성마다 기숙사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2) 스탑회의는 무엇일까?

스탑회의의 이름의 뜻은, 우리 학교의 모든 일정을 중단, 스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하여 스탑회의이다. 스탑회의의 주제는 굉장히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그 누구나 걸 수 있다. 학생중의 한 명이 “어? 이거 스탑회의로 가야하는 거 아닌가?” 한다면 어떤 것으로든 스탑회의를 갈 수 있다. 폭력, 악의성이 짙은 행동, 도난 등등 여러 주제로 스탑회의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 가장 스탑회의를 많이 하는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난이다. 사실 도난 외에는 주제로 스탑회의를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꼴이니 말이다.

스탑회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주장은 가정학습 일주일 전, 방학이 직전인 학기말에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가정학습이나 방학을 다녀오면 사람들은 다 잊고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난을 하는 범인들은 이 시기를 노린다.

도난의 관련된 스탑회의는 주로 기숙사에서 이루어진다. 기숙사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적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기숙사에서 많이 회의를 한다. 스탑회의의 고백은 완전한 익명으로 진행된다. 물론 그것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많지만 익명인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실명을 까발린다고 한다면 절대 안 나올 것이라며 납득 아닌 납득을 하며 넘어가고 있다.

스탑회의의 진행 방식은 작품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다. 언제나 고백쪽지를 돌리고, 나오기를 바라고, 규칙을 강화하며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럼에도 나오지 않는 범인은 여전히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을 경우, 필자가 가장 오랫동안 했던 회의는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회의를 했었다.

3) 스탑회의의 진행 방식과 분위기.

스탑회의의 진행 방식은 작품에 그대로 담아두었다. 우선 전통 과정을 거친다. 주먹 쥔 손을 위로 치켜들고선 모두가 눈을 감고 범인인 사람은 엄지를 들거나 손을 펴 보자기를 만든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범인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자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완전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고백쪽지에서도 안 나오는데,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전통 과정에선 당연히 나올 확률이 만무하다.

전통 과정이 끝나면 그 뒤로는 여러 진행 방안들을 받는다. 여기서 끝까지 같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볼거냐의 언쟁이 가끔은 오고간다. 그 뒤로는 계속해서 고백쪽지를 돌려나올 때까지 하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한다. 그러다가 계속 돌려서 나오면 좋게 끝나는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흐지부지 되거나 캠페인이나 다른 행동을 하기로 한 다음에 끝낸다.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치고 분위기 또한 격앙되기 마련이다. 점차 더욱 더 격앙되는 분위기로 인해, 조금 더 과격할 대안이 나오기도 한

다.(아침 108배, 찬물 샤워 등등이 그것이다.) 우리 모두가 고생하면, 자연스레 도난을 한 범인도 같이 고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는 부분을 기초한 발언이다. 그리고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기숙사내의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다운된다. 스타트업의 의를 두 번 연속으로 하는 날부터 기숙사 자체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분위기가 과격해짐에 따라 범인을 자연스럽게 추려내기 시작한다. 알리바이를 서로 다른 사람이 입증해줘서 알리바이가 증명된 사람들은 빠지고, 도난이 일어난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고백쪽지를 돌리거나 사감실로가 사감쌤과 1대1 면담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 또한 많이 나온다. 완전히 분위기가 격해졌을 경우에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털어버린 적도 있었다. 자연스레 언쟁도 많아진다.

4. 소설 쓰기.

(1) 참고 도서와 인터뷰로 얻은 점.

이인휘 소설작가님의 우리들의 여름을 기억해 줘. 에서 얻었던 것은 간결하면서도 무겁다. 이 소설의 주제가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보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우고 느꼈다.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마지막까지 낭만이 아니라 현실성을 채기는 모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내가 쓰는 작품의 시점도 맞지 않고, 비슷한 부분이 없음에도 참고도서로 삼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가. 무의식.

단편 소설쓰기의 모든 것 48쪽에 나오는 무의식과 함께 쓰기라는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무의식이 무심코 던져주는 부분을 스쳐지나가지 않고 잡아내고 난 뒤에 확장하여 무의식이 던져주는 것을 기반으로 다져보라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무의식이 던지는 말이라 하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생각을 생각하면 쉽다. 예로는 “아, 라면 먹고 싶다.”가 가장 쉬운 예시일 것 같다. 아니면 가끔씩, 여러 게임과 놀이를 하다가 문득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하며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무의식이 던져주는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무의식에게 소설을 쓰게 만들까?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된다. 하지만 “소설을 어떤 주제로 쓰지?”하는 애매모한 질문으로는 무의식도 명확한 답변을 던져주지 않는다. “소설을 쓰고 싶은데, 시대는 중세고 주인공과 역이는 사람은 꽤나 신분이 높은 귀족의 딸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주인공이 너무 가난한 건 싫은데..” 하며 명확한 질문을 던져 줘야한다. 그리고 이때, 그 부분을 계속 잡고 물어지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떠올리라고 재촉하면 안 된다. 그럴수록 무의식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필자는 그랬다.)

그렇게 질문하고, 어느 정도 고민하다가 안 되면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무의식은 그 주제로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생각하다가, 무의식이 판단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한 제안을 던져줄 것이다.

“똑같은 귀족이지만 사생아고 곧 버림받을 사람은 어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 무의식은 완전히 자유로운 의식이라 언제 이 대답을 내놓을지 모른다. 그리고 꿈을 기억하는 것에 지속시간이 길지 않듯, 이 무의식은 아주 찰나의 순간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선 그 뒤로는 말해주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무의식이 답을 내놓을지 모른다. 격렬하게 놀면서 갑자기 무의식이 말할 수도 있고, 그냥 혼자 잠에 들기 직전에 떠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때던 그 무의식의 의견을 놓치지 않기를 권장한다. 그 순간 무의식이 던진 말을 끊임없이 확장해나가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의 집안에는 사생아가 생겨났을까, 사생아라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의 지식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확장해나간다면 무의식이 던져준 의견에 자연스럽게 감탄하게 될 지도 모른다. 필자는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 풀리지 않는 고민을 계속해서 풀려고 노력하는 것은 취향이 아니라, 이 무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무의식과의 소통이 한 번이라도 이뤄지고 나면 자연스레 어떤 것이 무의식이 던져주는 말인지를 알 수 있다. 그야 당연히, 너무나도 뜬금없는 상황에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듯 머릿속에서 불현 듯 떠오르니 말이다.

필자는 소설의 사건과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전개 부분에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무의식에서 나왔다. 이렇듯 무의식은 잘만 활용한다면 소설을 쓰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무의식에만 매달린다면 안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무의식이 말을 건네주는 것은 1년이 넘어서야 던져줄지도 모르니까.

나. 묘사력.

묘사력은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어려운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묘사와 문장이 수준 미달이라면 자연스럽게 소설의 주제와 스토리 등을 제치고 읽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작가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것은 언제나 소설에 쓸 문장과 묘사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묘사력을 연습하는 방법은, 순전히 다른 책을 읽는 것이었다. 다른 책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묘사 등을 계속해서 읽게 된다면 어느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다. 이인취 소설작가님과 안재성 소설작가님도 이런 부분을 많이 잡아주셨다. 책을 계속 많이 읽고 많이 쓰라고 말이다. 확실히 계속해서 쓰다 보면 문장은 늘기도 한다. 내가 1학년 때 쓴 문장과 지금의 문장을 보면 확실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묘사력을 늘리는 것에는 그렇다할 방법이 없다. 그저 많이 읽고, 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다. 인터뷰로 얻은 점.

사실, 내가 인터뷰로 얻은 점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인터뷰한 학생과 소설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훈순이는 성향과 성격이 다르다. 훈순이는 소심하고 말을 잘 꺼내지 못하는 반면, 학생은 말을 잘 하고 소심한 성격도 아니다. 둘이 처한 상황은 비슷할 지라도 느끼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실제로 필자가 묘사한 훈순이와 학생이 느끼는 것은 많이 달랐다.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학생은 어이없고 짜증났다고 느꼈다고 말했던 반면 필자가 묘사한 훈순이는 그곳에서부터 당혹감과 두려움을 가장 먼저 느꼈다. 이후에 짜증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낮지만 두려움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짜증남은 훈순이 본인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은 범인으로 지목당할 때뿐만이 아닌, 자신의 핸드폰 휴대전화에 도난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왔을 때, 자신의 통화기록이 모조리 삭제되어 있을 때도 비슷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국엔 어느 정도 참고만 되었을 뿐. 내가 묘사한 훈순이의 시점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다.

(2) 얻은 점을 바탕으로 소설 쓰기.

앞서 서술했듯 꽤나 많은 것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런 점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 소설을 쓸 때는, 역시 어느 시점으로 소설을 써야할지가 가장 중요했다. 내가 묘사하고 싶었던 것은 훈순이가 범인으로 몰렸을 때에 겪는 억울함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싶었다. 또한 꽤나 많은 인물들의 시점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인물이 느끼고 있는 심정을 그 인물의 시점으로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수 인물 시점으로 정했다. 시점이 바뀔 때 마다 한 단락씩 바꾸며 시점을 바꿨다. 실제로 나쁘지 않았다는 평이 있었다.

우리 학교의 소개를 꽤나 많이 넣었다. 우리 학교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적었다.

쓰면서도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다. 범인으로 몰렸을 훈순이의 심정을 묘사할 때 너무 오버하면서 쓰진 않았는지, 어느 부분이 어색했는지를 신경 쓰고 싶었다. 내 생각대로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소설의 시점은 정해졌다. 그렇다면 필자의 소설을 단계별로 분류해보자.

발단: 인물의 배경과 이야기가 소개되고, 어떠한 사건이 터졌는지가 나타난다.

전개: 사건이 전개된다. 즉, 등장인물과 주인공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다. 여기서의 등장인물의 행동이 소설의 주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려주기도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건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위기: 사건의 반전이다. 내 작품으로 따지면 등장인 성우가 회의 때 자작극이 아니냐는 발언을 했을 때를 이 위기로 친다. 어떠한 일로 인해 다른 일이 터졌을 때도 있다.

절정: 극적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사건들이 전환되는 단계이다.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사건은 극적으로 변화하며, 이에 따른 등장인물들의 행동도 변화할 때도 있다.

결말: 문제가 해결되거나 풀리지 않은 채 막을 내린다.(풀리지 않거나 애매모호하다면 그 결말을 열린 결말이라 부른다.) 이때 소설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것이 소설의 전개 단계이다. 이제 내가 쓴 부분을 이 단계대로 풀어보자.

발단: 동장이자 주인공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며 시작한다.

전개: 스탓회의를 하며 사건이 전개된다. 또한, 나중에 점차 여러 범인의 도발 섞인 행동들이 일어나며 더욱 빠르게 전개된다. 이야기가 전개되며 누군가가 자작극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성우에게 들어간다.

위기: 성우가 누군가가 벌인 것이 자작극일 것 같다는 말을 회의시간에 해버린다. 누군가가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시점에서 배신을 하며 누군가에게는 결국 위기에 내몰린다.

절정: 누군가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급변한다. 모두가 누군가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처를 주어버린다.

결말: 누군가만이 상처를 입고 자퇴하고, 범인은 고백을 하지만 끝끝내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는다. 여기서 성우가 후회하며 자신에게 다짐하는 부분으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단계를 다 정해두고 나서 등장인물을 정했다. 이 소설의 주제는 다수에게 휩쓸린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지와, 계속해서 합리화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만이라도 돌이켜 봤으면 한다. 라는 것이 내가 쓴 소설의 주제이다. 그래서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을 어떻게 잘 나타낼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고민을 하면서 인물을 구상했다.

권성우= 동장이고 맡은 일을 잘 하는 16살 3학년. 하지만 입이 가벼워 결국 꺼내서는 안 될 말을 꺼내버린다.

정한경= 착한 형이다. 첫 번째 도난의 피해자다.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성격 좋은 형. 화를 잘 내지는 않지만 정말 화나면 무섭다. 나이는 17. 4학년.

이휘열= 마지막까지 이훈순을 감싼 사람. 18살 5학년이며, 함부로 범인을 유추하는 것을 굉장히 달갑게 보지 않는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길 원치 않는 사람.

이격형= 입이 가볍고 허세가 심하다. 자작극이 아니냐는 것을 권성우에게 귀뜸하고, 쪽지를 발견한 사람이다. 15살 2학년.

이훈순= 17살 4학년 성실하지만 소극적이고 말 못하는 성격. 말을 내 뱉는걸 잘 하지 못해서 약간의 미움을 사기도 한다. 결국 매우 큰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퇴하게 된다.

경호= 마지막 발언에서 합리화 하며 이훈순을 몰아넣은 사람. 16살 3학년.

그렇게 구성해서 나오게 된 주요 인물은 이렇게 있다. 이훈순의 성격을 소심하게 만든 이유는 그렇게 한다면 억울해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보다 더 적나라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의 경호는 적나라하게 합리화 하는 모습을 가림 없이 보여주고 싶어서 구상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정하고, 점차 살을 덧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소설을 썼다.

소설을 다 쓰고 나선 간디인들의 평가를 받았다. 문장이 읽기 어렵다는 평이 있어서 많이 고쳐보았다.

그때 또 다시 희망샘과 마주쳤고, 문득 도난에 관한 건이 떠올라 도난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 얘기를 시작했다.

“아, 희망쌤 그나저나 어제 일요일 날에 남자기숙사에서 도난 일어난 거 아세요? 4만 원 정도 사라졌던데.”

희망쌤은 약간은 놀라시며 대답을 해주셨다.

“어? 진짜? 큰일이네.. 스탓회의는 하는 거지?”

“네. 오늘 저녁에 할 것 같아서. 남자기숙사는 오늘 저녁 일찍 올라오기로 했어요.”

“너도 참 힘들겠다. 뭘 놈의 기숙사는 조용할 것 같으면 터지냐.”

희망쌤은 걱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날 격려해주었다. 나도 희망쌤이 하시는 말에 동의하며 같이 식당에 있는 밥을 먹었다.

이 부분에선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대화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밥을 먹고 있다. 읽기 어려울지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서 이렇게 바꿨다.

그때 식당으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또다시 희망쌤과 마주쳤고, 문득 도난에 관한 건이 떠올라 도난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 얘기를 시작했다.

“아, 희망쌤 그나저나 어제 일요일 날에 남자기숙사에서 도난 일어난 거 아세요? 4만 원 정도 사라졌던데.”

희망쌤은 약간은 놀라시며 대답을 해주셨다.

“어? 진짜? 큰일이네... 스탓회의는 하는 거지?”

“네. 오늘 저녁에 할 것 같아서. 남자기숙사는 오늘 저녁 일찍 올라오기로 했어요.”

“너도 참 힘들겠다. 뭘 놈의 기숙사는 조용할 것 같으면 터지냐.”

희망쌤은 걱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날 격려해주었다. 나도 희망쌤이 하시는 말에 동의하며 같이 식당으로 향하고 밥을 배식 받은 뒤에 자리에 앉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꿨다. 마주치는 부분을 더욱 구체화 했고, 뒤에 배식 받고 자리에 앉았다는 묘사를 추가해서 더욱 매끄러워지도록 설정했다.

반으로 향하자 아직 15분이 되지 않았던 탓일까.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이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왔다. 어느새 담임 쌤이신 의환쌤께서 들어오자 본격적으로 아침열기가 시작되었다.

이 부분은 읽고선 애매하다고 평가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더욱 마음에 들게 약간만 손봤다.

반으로 향하자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아직 15분이 되지 않았던 탓일까. 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왔다. 어느새 담임 쌤이신 의환쌤께서 들어오자 본격적으로 아침열기가 시작되었다.

솔직히, 바뀌도 되었고 안 바뀌도 되는 부분이었지만 개인적으론 밑에 부분이 더욱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수정했다.

여러 공유사항을 알리고, 여러 알림을 나누고선 책을 15분 동안 읽었다. 책 읽는 시간이 아니면 시간이 꽤나 금방 가는 것을 여러 번 체감한다. 아침 열기가 끝나고 나서 주를 여는 시간을 하러 전교생이 강당으로 향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색하다. 책 읽는 시간이 아니면이라니.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읽는 작가조차 어? 싶었으니 말 다했다.

여러 공유사항을 알리고, 여러 알림을 나누고선 책을 15분 동안 읽었다. 다른 반들보다 아침열기가 늦게 끝나는 편이었지만 책을 집중해서 읽자 시간은 꽤나 빠르게 흘렀다. 이내

아침 열기가 끝나고 나서 주를 여는 시간을 하러 전교생이 강당으로 향했다.

위에 내용처럼 수정했다. 묘사를 좀 더 넣었고, 읽기 쉽게 바꿨다.

이렇게 여러 문장들을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줄이 최대한 일직선에 가까워지도록 여러 부분을 수정했다.

또한 작가님께서 시점을 한 단락 나눠서 쓰지 말고 이어 붙여 글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절대다수에 여러 날카로운 욕들은 조금 필터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평가가 있어서 욕 또한 다른 말로 대체했다.

“다시 한 번 말해줄래? 내가 들었던 게 진짜야?”

제발, 제발 부탁이니 돈이 사라진 것만은 잘못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멋지게 깨부숴주는 답이 격현에게서 들려왔다.

“아니 오늘이나 어제 저녁에. 102호에서 돈과 다음은 누구 돈이 훔칠 건지까지 써놨어!!”

격현이의 대답은 내 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으며, 반면으로 제발 내 귀에 문제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멋 들어지게 부숴놓는 대답이었다.

‘진짜 제대로 좇됐네. 왜 내가 동장을 할 때 이런 듣도 보도 못 한 게.’

지금 이 상황에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작년에 동장을 하겠다고 나선 내가 원망스러웠고, 모르고 싶었던 사실을 굳이 알려준 격현이조차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원망스러워봤자, 결국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이내 그런 생각을 열심히 떨쳐 내본다.

현금 도난과 예고장. 이 상황이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가장 먼저 뇌의 안쪽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던졌다.

“그 쪽지에 뭐라 쓰여 있었는데?”



어느 때와 같은 아침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다른 점은, 어제 한 스태프회의의 피로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곤하다는 점이였다. 평소에 늦게 일어났지만, 오늘은 웬지 모르게 빨리 일어났다. 그렇다고는 해도, 7시 30분이니.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다가, 딱히 할 것도 없어서 샤워실로 가서 머리를 감고 나왔다. 그리고 시간을 때우고, 청소를 하기 전에 옷을 먼저 갈아입으려 내 옷이 보관되어 있는 서랍 안에 무언가 하나의 쪽지가 있었다.

“이게 뭐지..?”

분명히 어제 스태프회의 때 돌렸던 쪽지다. 접은 모양새나, 생김새나. 무엇보다 이미 볼대로 봐버린 스태프회의의 주옥같은 쪽지의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다. 다른 외부인 들에게 이런 말을 말한다면 물건에 무슨 분위기냐 라며 콧방귀를 뿜 테지만,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공감할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원래라면 동장인 성우형이나 사감 쌤이신 원상 쌤에게 전달해드리는 게 맞겠지만, 특유의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 이번에 발동해버려 결국에는 몰래 쪽지를 퍼봤다.

한번 피자 글씨가 써있는 것이 보였다. 도대체 왜 글씨까지 쓴 쪽지를 여기다 두고 갔는 가라는 의문이 잠시 동안 떠올랐지만, 그것은 쪽지를 완벽히 피자마자 해소되었다.

-정한경 돈 잘 먹었다. ㅋㅋ 다음에는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한 명씩 뿌려갈테니까 돈 잘 보관하고 있어라. ㅋㅋ

쪽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하고 눈을 비벼봤지만 똑같았다. 혹시나 꿈인가? 하는 마음에 볼을 강하게 꼬집었지만 역시나 쪽지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허탈함과 짜증남이 섞인 한숨과 함께 생각한 말을 무의식적으로 꺼내버렸다.

“허? 이게 뭐야? 와.. 진짜 올해는 미쳤다 미쳤어..”

당황스럽다. 썩을 대로 썩을 기숙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 까지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다.

흔잣말을 하는 날 보고선 이 방에서 빠르게 깬 3학년 형이 다가와선 쪽지를 흘겨보았다.

“씨발 실화냐? 진짜 레전드네.”

그 형의 반응도 나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이 남자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쪽지를 보고선 이 반응과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없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었다.

“야야, 이거 빨리 원상 쌤에게 보여드려.”

옆에서 쪽지를 흘겨보던 형이 낮이 나가있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그리고선 정신이 어느 정도 들었다.

여러 허탈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과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빠르게 이 사실을 원상 쌤과 그리고 성우형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었기에, 빠르게 사감실로 가서는 원상 쌤에게 쪽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원상 쌤! 저 이런 쪽지를 발견했어요!”

원상 쌤은 내가 뛰어서 사감실로 오니 장난을 치는 줄 알고 표정을 찡그리시다가, 손에 있는 쪽지를 꺼내자 쪽지를 눈을 작게 뜨고 읽으셨다. 그리고선 조용히 침묵 하시다가 이 내 말을 꺼냈다.

“오늘 새벽까지 해야겠다. 격현아,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

“저희 방에 제가 옷을 입으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이런 쪽지가 같이 나왔어요.”

원상 쌤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보이셨다. 확실히, 2학년인 나조차 심각한 것임을 알겠으니. 사감선생님이 느끼는 심각함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리라.

“일단 동장 말고는 알리지 마시구요. 이따 저녁때 알림 할게요. 일단 가서 청소하세요.”

원상 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시계를 본다. 확실히 지금 시간은 7시 47분. 7시 50분에 청소이니, 방으로 돌아가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후, 청소를 시작해야할 시간이었다.

그렇게 허탈함에 사감 실을 나오고 방으로 들어가니, 나를 기다리고 있던 형과 동생들이 있었다.

“아, 늦어서 미안해. 원상 쌤한테 말할 게 있어서.”

평소 같으면 장난 섞인 욕들이 꽤나 나왔겠지만, 스탑을 하고나서인가 모두가 피곤함과 피로감에 사무쳐서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다들 아무 말 없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선, 가위바위보를 했다.

가위바위보에서는 내가 최하위로 졌다. 우리 방의청소구역은 복도고, 1층은 2층보다 공간이 작기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4학년 형과 1학년 동생은 빠르게 방을 선택했고, 결국 남은 청소구역이 복도뿐이기에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복도로 쫓겨나듯 향했다.

“형, 그 쪽지 내용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래.”

“어, 응. 알겠어.”

같이 그 쪽지를 발견한 형에게 말했다. 그 형도 납득하면서 복도 끝에 있는 빗자루를 들

고 복도를 빠르게 청소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복도청소는 시간만 많이 소요될 뿐, 청소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낮았다. 그냥 쪽 먼지를 쓸고, 그 모아둔 먼지를 쓰레받이로 받고 버리면 끝.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쉬웠기에 한 번도 불통을 받지 않고 가볍게 청소를 끝마치고 방으로 돌아와선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의 느릿느릿한 것과 옷을 다 갈아입고서도 핸드폰을 보거나 놀며 농땡이를 피우자, 어느덧 퇴소 시간은 8시 15분이 훌쩍이나 지났다. 넣을 것이 없어서 가벼운 가방을 들쳐매고, 빠르게 퇴소하여 친구들과 같이 기숙사를 내려간다.

학교를 내려오고 시간을 확인하자 8시 36분 쯤. 아마 성우형이 양치를 하러 갔다 오거나, 혹은 양치도구를 가지러 반으로 올 때였기에 반으로 향해서 성우형을 기다렸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성우형이 나타났고, 빨리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리던 말을 빠르게 내뱉었다. 성우형의 반응은 동장이니 만큼, 더욱 더 절망한 듯 보였다.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간지러웠지만, 막상 말을 하니 이런 처지에서 동장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성우형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는 거지?”

수정하기 전의 부분이다.

“다시 한 번 말해줄래? 내가 들었던 게 진짜야?”

제발, 제발 부탁이니 돈이 사라진 것만은 잘못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멋지게 깨부쉘지는 답이 격현에게서 들려왔다.

“아니 오늘이나 어제 저녁에 102호에서 돈과 다음은 누구 돈이 훔칠 건지까지 써놨어!!”

격현이의 대답은 내 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으며, 반면으로 제발 내 귀에 문제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멋 들여지게 부쉘놓는 대답이었다.

‘실화냐? 왜 내가 동장을 할 때 이런 듣도 보도 못 한 게.’

지금 이 상황에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작년에 동장을 하겠다고 나선 내가 원망스러웠고, 모르고 싶었던 사실을 굳이 알려준 격현이조차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원망스러워봤자, 결국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이내 그런 생각을 열심히 떨쳐 내본다.

현금 도난과 예고장. 이 상황이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가장 먼저 뇌의 안쪽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던졌다.

“그 쪽지에 뭐라 쓰여 있었는데?”

격현이는 어느 때와 같은 아침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다른 점은, 어제 한 스태프회의의 피로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곤하다는 점이였다. 평소에 늦게 일어났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빨리 일어났다. 그렇다고는 해도, 7시 30분이니.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다가, 딱히 할 것도 없어서 샤워실로 가서 머리를 감고 나왔다. 그리고 시간을 때우고, 청소를 하기 전에 옷을 먼저 갈아입으려 내 옷이 보관되어 있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 무언가 하나의 쪽지가 있었다.

“이게 뭐지..?”

분명히 어제 스탓회의 때 돌렸던 쪽지다. 접은 모양새나, 생김새나. 무엇보다 이미 볼대로 봐버린 스탓회의에서 사용하는 쪽지의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다. 다른 외부인들에게 이런 말을 말한다면 물건에 무슨 분위기나 라며 콧방귀를 뿜 테지만,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공감할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원래라면 동장인 성우형이나 사감 쌤이신 원상 쌤에게 전달해드리는 게 맞겠지만, 특유의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 이번에 발동해버려 결국에는 몰래 쪽지를 펴봤다.

한번 피자 글씨가 쓰여있는 것이 보였다. 도대체 왜 글씨까지 쓴 쪽지를 여기다 두고 갔는 가라는 의문이 잠시 동안 떠올랐지만, 그것은 쪽지를 완벽히 피자마자 해소되었다.

-정한경 돈 잘 먹었다. ㅋㅋ 다음에는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한 명씩 뿌려갈테니까 돈 잘 보관하고 있어라. ㅋㅋ

쪽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하고 눈을 비벼댔지만 똑같았다. 혹시나 꿈인가? 하는 마음에 볼을 강하게 꼬집었지만 역시나 쪽지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허탈함과 짜증남이 섞인 한숨과 함께 생각한 말을 무의식적으로 꺼내버렸다.

“허? 이게 뭐야? 와.. 진짜 올해는 미쳤다 미쳤어..”

당황스럽다. 썩을 대로 썩을 기숙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 까지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다.

혼잣말을 하는 날 보고선 이 방에서 빠르게 깬 3학년 형이 다가와선 쪽지를 흘겨보았다.

“와, 실화냐? 진짜 레전드네.”

그 형의 반응도 나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이 남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쪽지를 보고선 이 반응과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없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었다.

“야야, 이거 빨리 원상 쌤에게 보여드려.”

옆에서 쪽지를 흘겨보던 형이 낮이 나가 있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여러 허탈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과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빠르게 이 사실을 원상 쌤과 그리고 성우형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었기에, 빠르게 사감실로 가서는 원상 쌤에게 쪽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원상 쌤! 저 이런 쪽지를 발견했어요!”

원상 쌤은 내가 뛰어서 사감실로 오니 장난을 치는 줄 알고 표정을 찡그리시다가, 손에 있는 쪽지를 꺼내자 쪽지를 눈을 작게 뜨고 읽으셨다. 그리고선 조용히 침묵하시다가 이내 말을 꺼냈다.

“오늘 새벽까지 해야겠다. 격현아,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

“저희 방에 제가 옷을 입으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이런 쪽지가 같이 나왔어요.”

원상 쌤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셨다. 확실히, 2학년인 나조차 심각한 것임을 알겠으니. 사감 선생님이 느끼는 심각함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리라.

“일단 동장 말고는 알리지 마시구요. 이따 저녁때 알림 할게요. 일단 가서 청소하세요.”

원상 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시계를 본다. 확실히 지금 시간은 7시 47분. 7시 50분에 청소이니, 방으로 돌아가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후, 청소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렇게 허탈함에 사감 실을 나오고 방으로 들어가니, 나를 기다리고 있던 형과 동생들이 있었다.

“아, 늦어서 미안해. 원상 쌤한테 말할 게 있어서.”

평소 같으면 장난 섞인 욕들이 꽤나 나왔겠지만, 스탓을 하고 나서 인가 모두가 피곤함과 피로감에 사무쳐서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다들 아무 말 없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선,

가위바위보를 했다.

가위바위보에서는 내가 최하위로 졌다. 우리 방의 청소구역은 복도고, 1층은 2층보다 공간이 작기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4학년 형과 1학년 동생은 빠르게 방을 선택했고, 결국 남은 청소구역이 복도뿐이기에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복도로 쫓겨나듯 향했다.

“형, 그 쪽지 내용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래.”

“어, 응. 알겠어.”

같이 그 쪽지를 발견한 형에게 말했다. 그 형도 납득하면서 복도 끝에 있는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빠르게 청소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복도 청소는 시간만 많이 소요될 뿐, 청소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낮았다. 그냥 쪽 먼지를 쓸고, 그 모아둔 먼지를 쓰레받기로 받고 버리면 끝.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쉬웠기에 한 번도 불통을 받지 않고 가볍게 청소를 끝마치고 방으로 돌아와선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의 느릿느릿한 것과 옷을 다 갈아입고서도 핸드폰을 보거나 놀며 농땡이를 피우자, 어느덧 퇴소 시간은 8시 15분이 훌쩍이나 지났다. 딱히 들어있는 게 없어서 가벼운 가방을 들쳐 매고, 빠르게 퇴소하여 친구들과 같이 기숙사를 내려간다.

학교를 내려오고 시간을 확인하자 8시 36분쯤. 아마 성우형이 양치를 하러 갔다 오거나, 혹은 양치도구를 가지러 반으로 올 때였기에 반으로 향해서 성우형을 기다렸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성우형이 나타났고, 빨리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리던 말을 빠르게 내뱉었다. 성우형의 반응은 동장이니 만큼, 더욱더 절망한 듯 보였다.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간지러웠지만, 막상 말을 하니 이런 처지에서 동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성우형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다.

“형, 이거 보통일 아닌 거 아냐? 범인 완전 또라이야!”

이렇게 수정했다. 욕도 바꿨고, 한 단락 끊어서 이어가는 부분을 바꿨다. 하지만 성우가 자작극이 아니냐는 발언을 하는 마지막 스탭회의에서의 시점은 바꾸지 못했다. 그 이유는 결론에 있는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서술되어 있다.

(3) 내 작품에 대한 설명.

내가 이번에 쓴 소설 “절대다수”는 한 비인가 대안학교의 생활관에서 동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가 이례적인 도난 사건을 겪으면서 생기는 일을 써내려가는 소설이다. 복수 인물 시점을 사용했고, 이 인물과 저 인물의 시점으로 바라보며 이때 당시에는 저 인물의 느낌이나 감정이 어땠는지를 알려준다. 여러 인물들의 시점을 돌아가면서 이 인물이 왜 이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려준다. 훈순이가 범인이 아님에도 범인으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느꼈던 억울함을 표현하려고 애썼다.

현실은 다정하지가 않아서, 나는 이 소설의 엔딩을 해피엔딩으로 매듭짓지 않았다. 다수에게 짓눌려서 사라져버린 사람들 중, 실제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Ⅲ. 결론

1. 평가

(1) 간디인 평가.

첫 번째로 받았던 평가는, 작품 도중에 묘사를 실수한 부분을 지적해주었다. 별 것 아닌 실수라 넘길 수도 있었는데 지적해주셨기에 고칠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감사하다.

그 다음 평가로는 시점의 전환, 적당한 반전, 전개 방식이 몰입도를 올려줬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글의 내용 자체는 정말 좋다고 칭찬해주셨다. 하지만 반면 아쉬운 부분은 문법에서,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이 다소 있었다고 한다. 글은 일직선 같은 흐름인데 내 글은 마치 뻘뻘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스탑회의 특유의 분위기와 경각심이 생겼다고 말씀해주셨다.

(2) 전문가 평가.

첫 번째로 보낼 때는 완성본을 보내지 않았다. 아직 엔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이인휘 소설작가님께 보냈다.

이인휘 소설작가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해주신 부분은 문장이 아직 부실하고, 첫 문장을 긴장감 있게 써보라고 말씀하셨고, 시점을 바꿔 사건 당사자가 겪은 일을 그의 입장에서 회상하듯 하는 것은 오히려 나쁘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렇게 시점을 훌트리게 되면 오히려 그 소설의 긴장감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이다. 그 뒤에 이어서 또한 시점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긴장감은 확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이인휘 작가님께서 제안해주신 이것의 대안은 회상하는 시점을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1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꿔서 쓰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한경이형이 사건을 약간 바꾸어주신 부분을 건네 주셨다. 왜 그렇게 수정하지 못했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나와 있을 것이다.

또한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직접 만나서 얘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주셨다.

2. 연구의 성과와 한계.

연구의 성과는 내가 글을 쓰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작품을 처음 쓸 때 들어가는 문장과 초반부의 글과 후반부의 글을 내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나는 후반부의 있는 글이 더욱 더 마음에 들었다. 조금이라도 쓰면서 성장한 것 같아서 약간은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소설의 주제와 사건의 전개를 정해두고 그곳에 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쓰니 소설을 쓰면서 사건을 전개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취미로 소설을 쓰게 된다면 이 부분을 지금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세워볼 것이다.

반면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꽤나 많았다. 우선 여름방학에 논문을 아예 쓰지 않았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한 동안 쓰지 않다가 그 뒤로 희석쌤께서 채찍질을 하신 뒤에야 썼다. 작품 또한 너무 부랴부랴 쓰느라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고 작가님께서 열심히 피드백을 해주신 부분 또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단락을 끊는 것을 이어 붙이는 것이야 어떻게든 가능했지만, 중복된 부분을 자르고 시점을

바꾸고 아예 새로 써야하는 것은 내 능력으론 한계가 있는 듯 했다. 도저히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리고 작품을 쓰던 도중, 갑자기 너무나 하기 싫어져서 대들었던 부분도 화가 난다. 그때의 내 자신이 너무나 나약해보이고, 겨우 저 정도로 힘들어 했나 싶었다. 그 부분에서 그것을 하기 싫다고 때려 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분발해서 했으면 논문을 쓰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참고 문헌>

데이먼 나이트(2017)- 단편 소설쓰기의 모든 것.

이인휘(2019)- 우리들의 여름을 기억해 줘.

<감사한 분들>

여기까지 열심히 끌어 와주신 강희석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강희석 선생님의 약간은, 때로는 엄청나게 과격한 채찍질이 아니셨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신 편집과 책을 제본해주겠다는 명민이형도 고마워. 덕분에 논문을 쓰는 것에 힘을 더 쏟을 수 있었어. 나중에 밥 한 끼라도 사줄테니까 찾아와줘.

같이 고군분투하며 힘을 쏟았던 박지해, 양지원도 고맙다. 희석쌤의 채찍질에 힘들어 할 때 같이 너무 힘들다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힘들게 나 하나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열심히 쓸 수 있었어.

작품 쓸 때 옆에서 구경하면서 재밌어! 나 책 진짜 안 읽는데 이걸 엄청 재밌는데!? 하면서 열심히 응원해주던 제경이도 고마워. 덕분에 초반부를 막힘없이 쓴 것 같아.

묵묵하게 논문을 쓰던 하늘이도 고맙다. 덕분에 나도 동기부여가 돼서 더욱 열심히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외에도 여러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열심히 쓸 수 있었습니다.

<논문 일지>

2020년 7월 21일

등장인물들을 열심히 구상해봤다. 주인공은 정했고 어떻게 해야 사건을 전개시킬지가 문제인 것 같다. 그 사건에 알맞은 등장인물들을 하나 둘 생각해나가보고 있다.

2020년 7월 29일

사건의 전개 단계를 어느 정도 구상했다. 단계를 구상하자 그곳에 알맞은 등장인물

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2020년 8월 26일.

사건의 단계를 다 구상했고, 등장인물들도 하나하나 끼워 맞춰보니 어느 정도 그럴 듯한 그림이 나온 것 같다.

2020년 9월 8일

9월달 입교하고 나서 희석쌤께 채찍질을 당하고선 작품을 열심히 부랴부랴 썼다. 어느 정도 써서 평가를 받았고, 방에서 작품을 쓸 때 제경이가 형 진짜 재밌어! 이러면서 나를 복 돌아주어서 지치지 않고 썼던 것 같다.

2020년 9월 14일

중간발표도 했다. 작품 PPT를 하루 만에 다 만들어서 너무 대충 만들었나 싶다.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한 것 같다.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0년 9월 21일

작품을 쓰기가 어렵다. 작품을 써야지 하는데 잘 안 써진다. 노트북을 키고선 한동안 작품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이내 노트북을 덮어버렸다.

2020년 10월 13일

작품을 썼다. 미친 듯이 썼다. 계속 썼다. 너무 힘들다. 던져버리고 싶다. 내가 이걸 왜 쓰지? 그래도 부모님에게 올해 안에는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희석쌤과의 약속은 안 지킬지언정 부모님과의 약속은 지켜야하는 게 도리다. 최대한 열심히 써버려야겠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상하더라도 끝내는 게 우선이라 하셨다. 핸드폰 하고싶다. 핸드폰 왜 냈지.

2020년 10월 14일

작품을 써서 끝끝내 완성했다. 하지만 완성해놓고서도 완벽하게 기쁘지 않았다. 논문이 남아서 그런 걸까. 이인휘 소설작가님께 미완성본을 평가받았다. 첫 말이 문장이 부실하다여서 굉장히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2020년 10월 15일

작품을 끝끝내 완성했다.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 여기까지 달려온 내가 기특하진 않고 왜 빨리 안 썼는지 약간은 후회가 된다.

2020년 10월 17일

논문을 쓰던 도중에 논문 일지 파일을 봐버렸다.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없는데, 대체 뭐 저리 짜증나는지 모르겠다. 순간 노트북을 부술 뻔 했다. 과거의 나를 죽이러가고 싶다. 근데 그럼 나도 죽잖아? 이게 말로만 듣던 타임 패러독스?

2020년 10월 20일

작품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논문을 썼다. 목차를 이상하게 해버려서 선배의 표를 복붙하고선 거기에 내 목차를 박았다.

2020년 10월 21일

논문도 부랴부랴 엄청 썼다. 본문 쓰는 게 작품 쓰는 것보다 안 힘들다. 빠르게 써

서 내 용돈으로 과자파티를 하는 불상사만은 막아야한다고 다짐했다.

2020년 10월 22일

희석쌤께 본문을 빠꾸 먹었다. 아.. 하면서 한 시간은 멍 때린 것 같다. 오명민한테 가서 끼에에엑 거리며 미친 듯이 익룡과 유사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렇게 하다가 문득 그렇게 시간이 아까워서 또 다시 열심히 썼다. 열심히 쓰다가 돌아댁기다가 갑자기 박지해가 나를 찾아와서는 희석쌤에게 빠꾸먹고 난 다음의 슬픔을 읊조렸다. 나도 너무나 동의가 되어서 같이 신세한탄 비슷하게 타령타령을 했다. 나중에 양지원도 합류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날 찾는다고 하시길래 양지원과 박지해가 나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말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희석쌤이 누군가를 뒷산에서 변사체가 발견하는 것에 큰 공헌을 한 사람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아닌가? 진짜 그런가? 아닌가? 뭐 아님 말고.

병권쌤이 석사학위 논문을 보여주셨다. 이거보고선 와 미친 내가 쓰는 건 그냥 조금 어려운 글쓰기네. 하면서 다시 조용히 논문 쓰러 기어들어갔다.

2020년 10월 23일

본문의 막바지가 보여간다. 발표까지 3일밖에 안 남았구나. 올해는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다. 본문 글자를 11포인트로 하라고 해서 11포인트로 했다. 근데 11포인트는 정말이지 너무 글자가 큰 것 같다. 간디인 평가를 받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소리 내서 읽어보고 틀린 문장을 고쳐보라는 게 어땠겠냐는 소리를 듣고선 했다.

2020년 10월 24일

작품 수정을 하고 있다. 확실히 여러 애매한 문장들이 보였다. 한 번 소리 내서 읽어보기를 잘한 것 같다. 시간이 없어서 새벽 3시 넘어서까지 간간히 쉬고 다시 노트북 잡고 읽어보고 하고 있다.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한 부분이 있어서 놓지 않고 해보고 있다. 힘들다.